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 '시동'

도·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담회... 이달 중 특별 실태조사 예정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29일, 전북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석, 도 대표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이 참석했다.

유희숙 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지리를 만들고 고용의 질을 높여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전북도 적극 공감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기조에 맞춰 상시 지속적 업무와 안전 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도와 출연·위탁기관의 경우는 상시 지속적 업무의 기준과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등 세부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정부와 맞춰 7월중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주용역의 경우는 타시도 사례에서 보듯 60세 장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문제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숙 국장은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7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가이드라인 범위내)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에 따라, 정부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모두 전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2017년부터 21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가뭄대책비 27억여원 확보

도내 저수지 준설 등 현장 투입

전북도는 올 봄부터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의 가뭄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6월5일 가뭄 긴급대책비 2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27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도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현장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가뭄 해갈을 위해 저수지 준설 사업을 7월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

며, 용수부족 우려지역에 대한 단계별 용수공급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퇴수활동, 용수절감 확보, 방류 최소화, 양수저류 등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가뭄극복 물절약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봄부터 지속되어온 전국적인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심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확보와 또 즉각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지도부와 인사 나누는 김현미 장관 국회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강훈식 원내대변인.

“지역목소리 대변 의정활동 펼칠 것”

도의회 정호영 부의장, '지역신문대상' 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정호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제1·사진)이 전국 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2017 지역신문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호영 부의장은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조례,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등과 같은 도민중심의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방현실을 대변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호영 부의장은 "정치의 출발을 지역신문의 시민기자단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고 영광이다"면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뽑아주시는 지역주민들과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섬진강댐 붕괴상황 가정 주민대피 훈련

유관기관 합동 진행... 비상대처능력 강화·구축체계 점검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재난사건대비의 일환으로 풍수해로 인한 섬진강댐 붕괴 위기상황을 가정한 '섬진강댐 댐붕괴 비상대처 주민대피 관계기관 도상훈련'을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섬진강댐은 지난 2011년 8월 9~10(2일) 이틀에 걸친 집중호우시 댐수위 상승과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비상상황에서 상하류 지역주민 2,160세대 4,650여명을 대피한 사례가 있다.

이후 댐상류 침수지역내 주민 이주와 비상여수로 설치 등 2015년 섬진

강댐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지금은 홍수조절 대응능력이 됐다.

섬진강댐 붕괴 대비 비상대처 단계별 주민대피 도상훈련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관계 기관별 역할을 재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토론회 도상훈련으로 토론 진행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도출된 미비점은 보완하여 비상대처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와 유관기관은 비상대처 및 주민대피 계획을 보완하여, 비상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헌혈추진협의회 개최 민·관·공 한자리

전북도는 민·관·공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나눔,사랑의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더 발전적이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헌혈추진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추진협의회는 전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경찰청, 전북대학교병원, 전주 상공회의소, 전북도민일보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 전라북도 혈액 수급은 그야말로 적색 비상이었다. 적정한 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월 말, 00시 기준 수혈할 수 있는 출고 가능한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5일을 넘어서는 때는 10월로 5.7일(A형-4.5일, B형-7.8일, O형-5.8일, AB형-

5.5일)이 유일했다. 3월 말엔 2.2일(A형-1.6일, B형-2.5일, O형-2.4일, AB형-3.2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생명의 단비가 되어주는 헌혈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북 혈액수급의 현안, 그리고 기관별 협조사항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했다.

협의회의 위원장인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의 중요성이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넓게 퍼져 가뭄 따듯한 생명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박형배의원 기초의원 부문 수상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사진)이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기초의원)을 수상했다.



초선의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현장활동 등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공유경제촉진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의 창업 기반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공유경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